여수시, 2024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7건 선정

여수시(시장 정기명)가 우수공무원을 선정해 특전을 부여하고 공직사회 적극행정 문화 정착 및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

시는 적극행정 사례 12건을 접수해 1차 실무위원회 심사와 2차 시민설문을 거쳐 최근 최종 적극행정위원회 심사로 우수상 2건, 장려상 5건 등 7건의 우수사례를 선정했다.

우수상은 ▲총무과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직원주도형 역할극 교육' 추진 ▲건강증진과 '전남 최초, 5종 임신축하금 하나로 통합·확대 지원' 등이 선정됐다.

총무과는 직장 내 괴롭힘·갑질 근절을 위해 팀장급 이상 관리자와 일반직원이 역할을 바꿔 실제 피해사례를 직접 연기하는 역할극을 기획하여 조직문화 개선 노력의 포석이 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건강증진과는 그간 임신확진비, 기형아 검사비 등 5종 29만여 원으로 각각 지원된 출산지원금을 '섬섬여수 행복한 40주 지원사업'으로 통합하여 50만 원을 일괄·확대 지원해 민선 8기 공약사항인 '출산지원금 지원 확대'를 완료했다.

장려상은 ▲여성가족과 '맘(MOM)편한 공공 실내놀이터' 조성 ▲경제일자리과 '카드형 여수사랑상품권 15% 특별할인' 추진 ▲평생교육과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 ▲산업지원과 '묘도 수소산업 클러스터 기회발전특구' 지정 ▲중부민원출장소 '도서지역 법정구역 경계정비사업' 지자체 최초 담당공무원 직접 수행 등이 각각 선정됐다.

정기명 시장은 "시민 체감도가 높은 적극행정 우수사례 발굴로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여 성과를 낸 직원들에게는 그에 따른 특전을 부여해 적극행정 조직문화를 정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여수시는 '2024년도 전라남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도내 시군 유일 우수상, 장려상의 2관왕을 차지했다. /노한상 기자

광양시, 9월 확대간부회의 열고 현안 논의

광양시는 최근 시청 상황실에서 실·단·과장 이상 간부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정인화 광양시장 주재로 9월 확대간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정인화 광양시장은 추석 명절에 시민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분야별로 종합대책 마련을 철저히 할 것을 지시했다.

정 시장은 명절에 고향을 찾아온 방문객들에게 청결하고 깨끗한 고향 이미지를 심어줄 것을 강조하는 한편, 도로변이나 가로수 등을 대상으로 환경정비 작업을 진행할 때 사전에 위험 요소를 확인하는 등 안전수칙을 최우선으로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공무원, 유관 기관, 유관 단체 등이 추석맞이 대청결 활동 추진에 있어 주도적이고 능동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추석 연휴 중 24시간 운영하는 응급실(사랑병원, 광양서울병원), 병원, 의원, 약국 현황을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고 관련 부서에 요구했다.

이어 '2024 대한민국 SNS대상' 대국민 투표가 시작됨에 따라 8년 연속 수상의 쾌거를 이루기 위해서는 시청 직원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참여도 중요하다며 투표 참여 독려에 힘쓸 것을 지시했다.

'광양시 스마트 구인구직 플랫폼'과 관련해서는 시스템 운영의 문제점이 발견되거나 불편 사항이 접수될 때마다 수시로 개선하고 보완해 광양시의 취·창업 정보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플랫폼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요구했다.

정인화 광양시장은 이 밖에도 ▲2024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대비 철저 ▲광양시 임신지원금 사업 조속 추진 ▲2024 추석맞이 광양 농특산물 선물세트 판매 적극 홍보 등을 지시했으며, 시민들이 시정에 감동할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들이 적극적인 자세로 현안 사업을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노한상 기자

곡성군, 중소기업 특례보증

곡성군은 지역 내 중소기업과 기업가형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특례보증 지원에 나선다고 전했다.

이 사업은 행정안전부가 인구감소 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하는 정책으로,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운전자금과 시설자금의 저금리 대출과 우대보증 혜택을 부여한다.

곡성군은 원활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농협은행 곡성군지부와 협약을 앞두고 있다. 협약이 체결되면 곡성군 관내 중소기업들은 최대 30억 원, 기업가형 소상공인은 최대 5억 원까지 농협은행 대출과 신용보증기금의 대출 전액보증, 곡성군의 이차보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지역 주력산업과 최근 3년 이내 지방 이전기업, 농식품 분야 우수기업, 기업가형 소상공인 등 중소기업이다. 자격 요건을 충족한 기업은 군에서 추천서를 발급받아 농협은행 곡성군지부에 신청하고, 자금 소진 시까지 진행된다.

군 관계자는 "경기침체와 고금리 상황에 취약한 관내 중소기업에 대한 집중지원으로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곡성군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곡성군청 기획실 지방소멸대응팀 또는 도시경제과 투자유치팀에 문의하면 된다. /심선섭 기자

순천시(시장 노관규)는 최근 양일간 낙안면 창녕보건진료소에서 연세대학교 의료원과 함께 "찾아가는 건강버스"를 운영하고 성황리에 마무리 했다. /순천시 제공

순천시, 찾아가는 건강버스 운영 성료

순천시(시장 노관규)는 최근 양일간 낙안면 창녕보건진료소에서 연세대학교 의료원과 함께 "찾아가는 건강버스"를 운영하고 성황리에 마무리 했다고 밝혔다.

연세대학교 의료원 '찾아가는 건강버스'는 전문 의료진 10명이 의료장비를 탑재한 버스를 타고 의료 취약계층 주민을 직접 찾아가 건강교실과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첫째 날은 주민 30명 대상 만성질환관리, 응급처치, 운동교실 등 건강교육을 실시하였고, 둘째 날은 주민 70명 대상 의료장비를 이용한 당뇨병, 부정맥 등 진단검사와 영양수액주사, 전문의 일대일 상담을 통한 진료 서비스를 제공했다.

수도권 대학병원 연계 의료 서비스 소식에 당초 예상보다 많은 주민들이 찾아와 낙안면행정복지센터와 순천시보건소, 보건진료소장까지 합세해 주민들이 의료서비스를 마음껏 받을 수 있도록 도왔다.

건강버스 진료를 받은 한 주민은 "몸이 아파도 병원에 못 가고 건강이 쇠약해진 상황이었는데, 지역에서 진료를 받고 영양제도 맞을 수 있어 감사하다"고 말했다. /노한상 기자

구례군, 한국예술종합학교와 아트 피크닉

구례군은 최근 한국예술종합학교(이하 '한예종')와 함께 지리산정원 일원에서 색다른 문화예술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수리수리 마수리 아트 피크닉'이라는 주제로 펼쳐진 이번 행사에는 한예종 재학생과 졸업생 40여 명이 참여해 관광객들과 호흡하며 다양한 문화예술체험 프로그램과 숲속 음악회를 진행했다.

젊음의 열정과 상상력 넘치는 한예종 학생들이 직접 기획하고 진행하는 체험과 공연이었기에 더욱 참신하고 의미 있는 행사였고, 300여 명의 가족단위 관광객들이 함께하며 즐거운 추억을 만들었다.

구례군과 한예종은 2022년 9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협력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다.

도시지역에 비해 문화적 혜택이 부족한 구례군은 군민들이 문화예술을 향유할 기회를 늘리고, 한예종 학생들은 교정을 벗어나 다양한 경험을 쌓으며 예술적 소양을 넓혀 나가는 상생 효과를 얻고 있다.

김순호 군수는 "주민은 물론 한예종 학생들도 이러한 협력사업에 대한 호응도가 매우 높다"며, "앞으로도 구례군과 한예종이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한예종 학생들이 지속적으로 구례에 머물면서 지역민들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고, 향후 전문 예술가로 성장해서 구례를 잊지 않고 구례를 소재로 다양한 작품을 만들어 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홍경석 기자